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 퇴촌 '망신'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이 인천선수촌에서 한 달간 퇴촌 당한다.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조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26일 "지난 17일 인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압박 등반 훈련을 하던 도중 남자 A선수가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남자 B선수의 바지를 내렸다"며 "B선수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선수촌에 성희롱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표팀 감독과 코치가 보고를 받고 A, B선수를 면담한 뒤 화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B선수가 너무 수치심을 느꼈다며 화해를 거부했다. 연맹은 사건 당일 대표팀 코치의 진술서와 감독 확인서를 받았다"며 "연맹 관계자가 18일 인천선수촌을 방문해 면담했다. B선수는 19일 대한

훈련 중 바지벗기기 성희롱 신고...기강해이

대한체육회, 한달간 인천선수촌 퇴촌 결정

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성희롱 신고 문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A, B선수는 모두 2018 평창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다.

신고를 접수한 대한체육회와 인천선수촌은 24일 오후 쇼트트랙 대표팀 전체의 기강 해이를 이유로 남자 8명, 여자 8명 등 대표팀 선수 16명과 코치진을 모두 한 달 동안 퇴촌시키기로 결정했다. 선수들과 코치진은 모두 26일 오전 퇴촌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다음달 24일 까지 선수촌을 이용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쇼트트랙 선수

들 모두 참여하는 공식적인 훈련시간에 발생했고 단순히 행위자 및 피해자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닌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체 훈련 분위기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빙상 쪽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 내린 결정"이라며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내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재범 전 코치가 수년간 국가대표 심석희를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쇼트트랙은 또다시

성희롱 파문에 휩싸이고 말았다. 지난 2월에도 쇼트트랙 대표팀 남자 선수 김건우가 남자 선수들이 출입할 수 없는 여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김건우와 그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이 함께 퇴촌당하고 징계를 받았다.

체육회 관계자는 "훈련 도중 장난을 하다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다. 진하다고 해도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직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빙상연맹은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촌 퇴촌과 별도로 7월 첫주 관리위원회를 열고 A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의 권고에 따라 훈련 복귀 전 국가대표 인성교육 및 인권교육 성 관련 예방교육도 한다.

이강인, 고향팀 보러온다

30일 인천 유나이티드 홈경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하며 한국의 준우승을 이끈 이강인(18·발렌시아)이 30일 인천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 현장으로 온다.

인천은 26일 "이강인이 30일 강원FC와의 홈경기를 찾는다. 시축과 사인회 그리고 하프타임 친필 사인 볼 선물 등의 행사를 마련해 인천 팬들과 인사를 나눌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강인은 인천 유시스템을 통해 성장했다. 만 6세인 2008년부터 3년 동안 인천 12세 이하(U-12)팀에 몸담았고 이후 스페인으로 갔다.

당초 이강인은 15일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를 찾기로 했지만 정정용호가 결승에 진출하면서 미뤄졌다. 뉴스

진민섭, 장대높이뛰기 한국 新...5m72

진민섭(27·여수시청)이 53일 만에 자신이 보유한 장대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진민섭은 25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5m72를 날아올랐다.

지난달 3일 5m71을 넘어 한국 신



진민섭이 25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5m72를 날아올라 한국 신기록을 세운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록을 세웠던 진민섭은 자신의 기록을 1cm 경신해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이날 첫 번째 바 높이인 5m30을 2차 시기에서 넘은 진민섭은 이후 5m50을 1차 시기에서 가볍게 넘었다. 바 높이를 종전 한국 기록보다 1cm 높은 5m72로 올린 후 1차 시기에서 성공하며 새로운 기록을 썼다.

이후 2020 도쿄 올림픽 기준 기록인 5m80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서 실패한 후 경기를 마쳤다. 진민섭은 "다가오는 9월 도하세 계육상선수권을 앞두고 부상 없이 컨디션을 잘 조절해 선수권대회에서 5m75 이상 높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5월까지의 도쿄 올림픽 기준 기록인 5m80 높이를 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2013년 첫 자신의 한국 기록(5m64)을 세운 진민섭은 2014년 5m65, 2018년 5m66과 5m67, 2019년 5월 5m71을 넘었다. 그리고 이날 5m72로 6번째 한국기록을 수립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1군 데뷔' 한선태 "초구 던질 때 긴장 많이 했다"

비선수 출신으로 1군 무대...10이닝 무실점 제 몫

'비(非)선수 출신'으로 프로 선수가 된 LG 트윈스 우완 투수 한선태(25)가 1군 데뷔전에서 제 몫을 다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선태는 2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3-7로 뒤진 8회초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한선태의 등장만으로 잠실구장이 잠시 달아올랐다. 그가 등장하자 LG 팬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였다.

그의 특이한 이력 때문이다. 한선태는 고교 시절까지 정식 야구부에서 엘리트 선수로 뛴 적이 없다. 엘리트 야구를 경험하지 않은 그는 군 복무 후 사하인 야구를 했고, 2017년 독립리그 파주 켈린저스, 지난해 일본 독립리그 도치기 골든브레이브스에서 뛰며 꿈을 키웠다.

한선태는 2019 KBO 신인 2차 드래프트에서 10라운드 전체 96순위로 LG의 지명을 받아 KBO리그 사상 최초로 비선수 출신 프로 선수가 됐다.

LG는 퓨처스(2군)리그에서 19경기에 등판해 승리없이 1패2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0.36을 기록한 한선태를 육성선수에서 정식선수로 전환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선태는 이날 경기를 앞두고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류중일 LG 감독은 "야구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아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었지만 2군에서 평가가 워낙 좋았다. 이곳에서 훈련하는 것을 직접 봤는데, 볼에 힘이 있다"며 "쓰러고 1군에 불러올린 것 아니겠나. 1, 20이닝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군 경기에 처음 등판하면 긴장할테니 편한 상황에 등판시키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1군에 등록된 날 한선태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류 감독은 팀이 끌려가자 한선태를 투입했다. KBO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비선수 출신 투수가 1군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8회초 마운드에 올라 선두타자 이재원을 상대한 한선태는 초구에 폭투를 던지며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우전 안타를 맞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후속타자 안상현을 상대하면서



2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KBO 리그 SK 와이번스 대 LG 트윈스의 경기, 8회초 무사 1루 상황 LG 투수 한선태가 SK 안상현의 타석 때 더블아웃 시킨 뒤 박수치고 있다.

도 볼 3개를 던진 한선태는 2루수 방면 병살타를 유도하며 순식간에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았다.

이어 김성현을 상대한 한선태는 몸에 맞는 공을 던지거나 또 흔들었다. 그러나 고종욱에 1루 땅볼을 유도해 실점없이 이닝을 끝냈다. 한선태는 1군 데뷔전에서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17개의 공을 던진 한선태는 지구구 커브, 포크볼을 섞어던졌다. 지구 최고 시속 144km를 찍었다. "운이 좋으면 9월이나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던 한선태는 성공적인 1군 데뷔전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경기 후 한선태는 "첫 타자를 꼭 잡고 싶었는데 안타를 맞아 아쉬웠다. 초구를 던질 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며 "긴장을 풀고 힘있게 던지자고 했고, 투구 밸런스를 잡는데 집중하고자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결과는 좋았지만 내가 잘했다기보다 수비수에 도움이 컸다. 아직 나에게 남은 숙제라 생각하고 점점 고쳐나가 더 좋아지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뉴스

자연의 숨겨진 구멍
Hidden in Nature's Gorge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굴,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